

『대학교육』 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현승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새 천년을 눈 앞에 두고 우리 대학 사회에는 어느 때 보다 희망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 및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사회에서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진국들간의 교육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국은 주도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상황이 급박하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해 가는 『대학교육』이 100호 기념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민주화를 성취시키고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2년 4월 2일 설립된 이후, 협의회 창설의 취지를 살리고, 회원대학 간의 협동과 상호발전, 그리고 대학간 정보교류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3년 1월,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학교육』은 이후로 80년대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규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교육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학은 80년대 이후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적절한 교수, 대학시설 및 재정의 증가가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대학이념의 확일성, 대학정책 및 운영의 비합리성, 대학교육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 교수충원절차 및 자질문제, 교육 및 연구여건의 부실, 열악한 대학 재정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대학의 발전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하여 꼭 해결해야 하는 대학구성원 모두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대학교육』은 다양한 능력을 지닌 대학구성원들의 힘을 결집하는 장이 되고자 하였으며, 창간호부터 100호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은 대학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 밖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보다 활발하고 참신한 시각에서 대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수렴하는 공간이 되어 온 『대학교육』이 대학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사회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특집은 대학의 기능, 대학재정, 대학교육체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대학교육정책, 대학구성원 및 기구, 대학원 관련 내용 등 대학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왔으며,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는 새 천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생성과 소멸주기 단축 등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여 보다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지식인이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 다이엘 벨, 드러커 등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 전문잡지로서 명망 높은 교수들에 의해 편집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도 대학교육의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대학내외의 논의를 주도하고, 개방적인 자리로 이끌어 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기혁신의 과정 속에서 『대학교육』이 항상 새롭게 거듭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학교육』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박정호**